

## 제1절 가사의 개요

### 1. 가사의 개념과 전승

조선왕조와 함께 발생하고 쇠퇴한 가사는 그런 이유로 조선시대적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가사의 작가는 모두 당시의 사대부(士大夫)로서 상춘곡(賞春曲), 면앙정가(俛仰亭歌), 송강가사(松江歌辭) 등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그 형식은 3·4조 혹은 4·4조를 기본 율조로, 4음보의 율격을 제한 없이 계속할 수 있는 문학 갈래이다. 양반가사는 주음수율이 3·4조이고, 부음수율이 4·4조이다. 한편, 평민가사의 경우 주음수율이 4·4조이고, 부음수율이 3·4조인 데 비해, 내방가사의 경우는 주음수율이 4·4조이고, 부음수율이 3·4조이다. 그리고 양반가사에서 평민가사, 그리고 내방가사로 갈수록 3·4조 내지 4·4조의 비중이 높아져 더욱 정제된 시형을 보인다.

가사에서 주로 노래한 것은 강호생활(江湖生活), 탐승(探勝), 교훈(敎訓) 등이라 할 수 있다. 교훈적인 것은 주로 수신(修身)이나 제가(齊家)에 대한 유교 윤리를 일반이나 어린이들을 계몽하기 위하여 노래한 것이다. 탐승은 아름다운 경치를 찾거나 선현의 유적을 찾아 기행한 내용을 읊은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강호의 생활을 노래한 강호가사(江湖歌辭)이다. 강호에서 그들의 생활은 산수의 소요(逍遙) 등 자연과의 교섭이나 취흥(醉興)을 즐기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사대부 가사는 3개의 지역적 특색이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호 지방과 남쪽의 영남과 호남의 세 지역이 그것이다. 이 외 관북·관서지방이 있으나 그곳 가사가 학계에 보고된 것은 많지 않다. 이 지역 중에 초기 가사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호남이다. 정극인(丁克仁), 송순(宋純), 정철(鄭澈)로 이어지는 호남 가사는 서정성이 풍부하며, 멋과 여유와 풍류 등을 함께 지닌 것들이다. 물론 이 중에 정극인이나 정철이 원래 서울 출생이라 하지만 그들의 생장이나 활동의 중심지가 호남이므로 서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곳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호남 가사는 그 뒤에도 박순우(朴淳愚), 박리화(朴履和) 등으로 꾸준히 계속되었다. 영남 가사는 이현보(李賢輔), 이항(李滉) 등이 우리 시가에 대한 호의를 보인 이래로, 박인로(朴仁老)가 많은 가사 작품을 남겼다. 그의 가사 작품에는 영남 지방의 소박성과 직설적인 풍모가 잘 나타나 있다.

이후 영남 사림의 유교 공동체에서는 훗날 가사 문학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당시 영남에서는 ‘규방가사(閨房歌辭)’라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가사가 인기를 얻어 주로 교훈적이고 도학적인 내용을 담아 노래하게 되었고, 호남에서는 이른바 ‘남도소리’가 발전하여 판소리, 잡가를 부르는 명창이 많이 나타났다. 영남과 호남의 두 지역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지방의 문화를 모두 수용하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나간 곳이 기호 지방이다. 기호 지방의 가사로는 이이(李珥)의 <자경별곡(自警別曲)>이나 양사언(楊士彦)의 <미인별곡(美人別曲)> 등이 있다. 기호 지방의 가사는 두 지역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면서도 영남 가사보다는 세련되고 시대에 민감함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개화를 찬양하기도 하고 기울어가는 국운을 바로 잡으려는 날카로운 사회 풍자의 가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가사의 여러 종류 가운데 최근까지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는 규방가사를 들 수 있다. 규방가사란 시기적으로는 조선시대 영조(英祖)조 중엽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공간적으로는 영남지방 일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이것의 창작과 향유층은 영남지방 남인(南人) 양반가 규방의 부녀자들이 그 대중을 이루고 있으나, 그 필자는 알 수 없고, 그 보존량은 아마도 수만 필(疋)을 상회하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주된 내용은 출가하는 딸에게 양반가에서 지켜야 할 부덕을 가르치는 데서 비롯하였다. 그리고 뒷날에는 여인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고뇌까지 노래하게 되었으나, 그 중심은 언제나 교훈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규방가사는 도덕을 숭상하고 예의와 염치를 중히 여겨 경상도 양반 계층이 지녀야 할 긍정적인 측면을 노래한 반면에 지나친 문벌주의, 가족주의의 폐단도 가지고 있다. 규방가사가 지니고 있는 문학성은 수준급의 작품이 많이 있으며, 또한 미발굴된 채 현재 영남지방 일대에 보존되어 있는 그 양이 우리의 어느 문학 양식의 작품 수보다도 많이 있고, 또한 규방가사에는 문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자료적 가치도 또한 풍부한 것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규방가사에는 유학 내지 민속학, 역사학 등 국학과의 관련성도 농도 깊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26</sup>

## 2. 울진의 가사

울진지역에서 불리던 가사는 대개 ‘시집살이의 고됨’, ‘혼인할 여성의 마음가짐’, ‘여성 자신의 신세 한탄’, ‘규방 규수들의 화전놀이’ 등을 바탕으로 한 규방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울진지역의 대표적인 가사로는 혼인할 여성이 경계해야 할 도리에 대해 읊은 「경계가」와 「시골여자 슬픈여자」, 사대부 남성이 경계해야 할 삼강오륜의 도리에 대해 읊은 「김대부 혼민가」, 40대 여성이 조실부모하고 남매가 살아온 일과 울진군의 남씨 가문에 출가하여 겪은 일 등을 읊은 「무자화의 설움」, 규방의 규수들이 봄에 화전놀이하는 흥취를 읊은 「화전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형제간의 우애와 정이 엮보이는 「백남답기서」, 서초(西楚)의 패왕(霸王) 항우의 애첩 우희(虞姬)의 아름다움과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읊은 「우미인가」 등의 가사

126. 정재호, 1990,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8~18쪽; 권영철, 1989,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3~4쪽 참조.

를 들 수 있다.

「경계가」는 전체 138행의 장편가사로, 주된 내용은 출가하는 딸에게 양반가에서 지켜야 할 부덕을 가르치는 데서 비롯하였다. 뒷날에는 여인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고뇌까지 노래하게 되었으나 그 중심은 언제나 교훈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규방가사는 도덕을 숭상하고 예의와 염치를 중히 여겨 경상도 양반 계층이 지녀야 할 긍정적인 측면을 노래한 반면에 지나친 문벌주의·가족주의의 폐단도 가지고 있다. 이 가사를 통해 당시 혼인하는 여성이 지녀야 하는 덕목, 그리고 혼사를 앞둔 딸에게 경계할 것들을 일러주는 친정 부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시골여자 슬픈여자」는 전체 255행의 장편가사로 작자 불명의 여성이 혼인 후 8년간 경성으로 유학 간 남편 뒷바라지를 하다가 결국은 이혼을 당하게 되는 슬픔을 사계절에 맞춰 읊은 것이다. 이 가사는 일제강점기에 서울로 유학 간 남편을 둔 여성들의 노심초사하는 마음과 일부종사라는 도덕적 규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성격을 띤다. 이는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정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과도기적 경향을 엿보게 하는 노래이다. 「김대부 혼민가」는 김대부라는 사대부가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남자로서 해야 할 인륜 도덕에 대해 노래하는 교훈적 성격을 띤 가사이다. 부모, 부부, 자녀, 장유, 친척, 손님 접대 등의 인륜 도덕에 대해 읊고 있다. 곤궁한 살림일지라도 사대부로서 지녀야 할 도리와 덕목을 노래하고 있어 전통적인 사대부의 남성적 기질을 엿보게 한다. 「무자화의 설움」은 전체 111행의 장편가사로 작자 불명의 40대 여성이 조실부모하고 남매가 살아온 일, 울진군의 남씨 가문에 출가하여 겪은 일 등을 두견화, 구자화, 무자화 등의 꽃에 비유하여 읊은 것이다. 이 가사를 통해 조실부모한 여성이 행세깨나 하는 양반 가문에 출가하여 겪은 일을 후원에 핀 꽃들에 비유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당시 여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화전가」는 전체 205행의 장편가사로, 울진군의 규방의 규수들이 봄에 화전놀이하는 흥취에 대해 읊은 것이다. 「화전가(花煎歌)」는 일명 「화수가(花隨歌)」라고도 한다. 화전은 꽃을 지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꽃을 지짐으로 해서 그것을 먹으면서 놀이를 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화수는 꽃을 따른다는 의미이니, 꽃을 따라 봄을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백남답기서」는 전체 141행의 장편가사로, 부모를 일찍 여윈 남매 형제가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온 세상살이에 관해 주고받은 것을 읊은 것이다.